

메시지 4
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 안에서
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함

성경: 빌 1:21상, 엡 4:16, 24, 계 1:2, 9, 11-12, 19:7, 5:6, 행 20:24

I. 우리는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관련된 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.

A.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새사람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침투되는 것이다 — 엡 3:16, 4:12, 16, 24.

1. 우리는 복음 전파와 신성한 진리들을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 집회함에 관하여 우리에게 있는 커다란 책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.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.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— 마 24:14, 28:19.

2. 하나님의 갈망, 곧 하나님의 큰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교회생활의 실재 곧 참된 내용으로 소유하여,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금등잔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— 엡 1:5, 9, 빌 1:21상, 2:13, 계 1:11-12.

a. 이럴 때 몸의 생활은 로마서 12장의 실재에 도달할 것이고, 자연스럽게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신부의 준비가 될 것이다.

b.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. 세계정세는 이 목적을 위해 준비되었다 — 마 16:18, 엡 4:16, 계 1:5, 행 17:26.

3.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인이 되고, 몸과 새사람과 등잔대와 신부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방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다 — 엡 4:16, 24, 계 1:12, 19:7.

B.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예수님의 증거를 깊어지는 것이다 — 계 1:2, 9.

1.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증거를 제시하는데, 이 예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이다 — 계 1:2, 9, 20, 19:10하.

2.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밝혀 주며,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표현된다. 그러므로 교회는 이 책에 제시된 예수님의 증거이다 — 계 1:1, 13, 20, 19:10하.

a. 예수님의 살아 있는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표현과 증거이며,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,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다 — 고후 4:4, 골 1:15, 18, 3:10-11, 15.

b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생산들, 곧 예수님의 '사진들'이다. 이제 하나님은 단체적인 표현, 곧 교회를 얻으셨다. 이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예수님의 증거이다 — 요 1:14, 18, 12:24, 고후 3:18, 엡 1:22-23, 4:16.

C.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금등잔대들인 지방 교회들을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확산하는 것이다 — 계 1:11-12, 20.

1.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회복의 확산을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 — 막 16:15, 20, 요 15:16, 행 1:8.

2.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의 우주적인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금등잔대들인 '교회 나무들'을 심어야 한다 — 고전 1:2, 계 1:11-12, 20.

a. 비록 우리는 교회를 형성할 수 없지만, 땅끝까지 가서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는 위치와 권리와 기회와 심지어 위임을 갖고 있다 — 행 1:8, 13:1-3, 갈 1:2, 계 1:11, 고전 1:1-2, 살전 1:1.

- b. 교회 나무들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금등잔대들이다. 이 금등잔대들은 사실상 살아 있는 금나무들이다 — 계 1:11-12, 20.
- c. 상징적으로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인 교회를 의미한다 — 계 1:11-12.
- d. 우리는 모두 금등잔대들인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워야 한다 — 롬 16:16하, 갈 1:2, 살전 1:1, 2:14.

II.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 안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신성한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 — 계 4:2, 5:6, 22:1.

- A.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행정, 곧 하나님의 통치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다 — 히 12:2, 계 3:21, 22:1, 5:6.
- B.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주의 행정가이시다.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분께 주어졌다 — 마 28:18.
- C.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에,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셔서, 그분을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— 행 2:34-36, 빌 2:5-11.
- D. 요한계시록에 따르면,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는 신성한 행정의 보좌이다 — 계 4:2, 5, 5:6, 22:1.
 - 1.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분이신 어린양 구속자는 이제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에 걸쳐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신다 — 요 1:29, 계 5:6.
 - 2. 주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집행하신다.
 - a.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행정관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.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— 계 1:5상.
 - b.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도자와 구주이시고,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— 행 5:31, 계 3:7.

III.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 안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면, 우리는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— 계 14:4하.

- A. 어린양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움직임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구속자와 하나가 되어,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신성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— 계 1:5, 5:6, 14:4하.
- B.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정해 주신 여정에서 어린양을 따라야 한다 — 행 20:24.
 - 1.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 주신 여정을 찾아내야 하고, 신실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.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,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여정을 계속 가야 한다 — 딤후 4:7.
 - 2.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주신 여정이 우리 앞에 놓인 달려야 할 경주이다 — 히 12:1-2.

IV.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 안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신실함을 요구한다. 따라서 우리는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공훈을 구해야 한다 — 고전 4:2, 7:25, 마 24:45, 25:21, 23, 계 17:14.